



2026. 8. 26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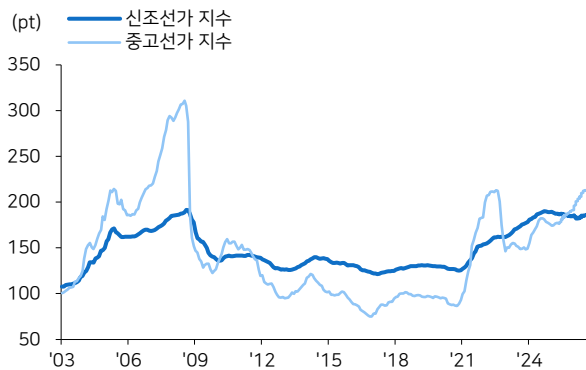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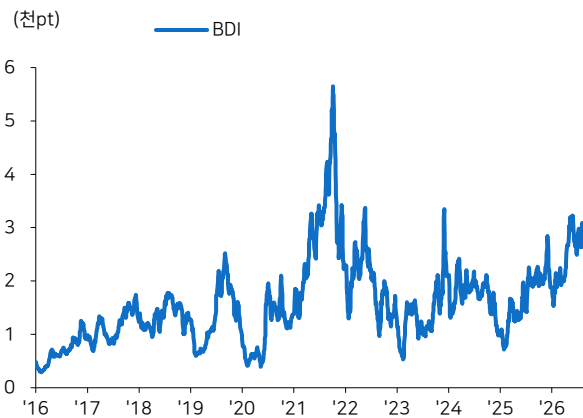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1.0달러 (+6.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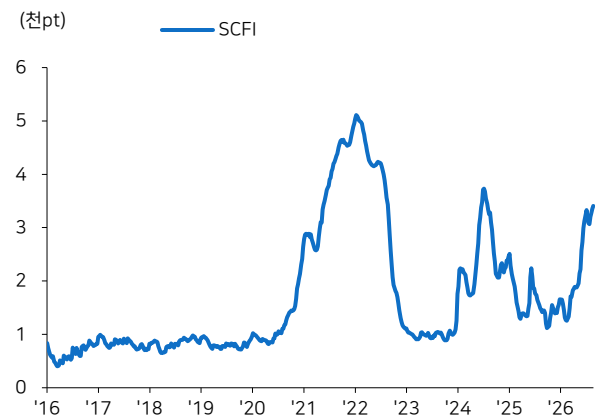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882.0p (+4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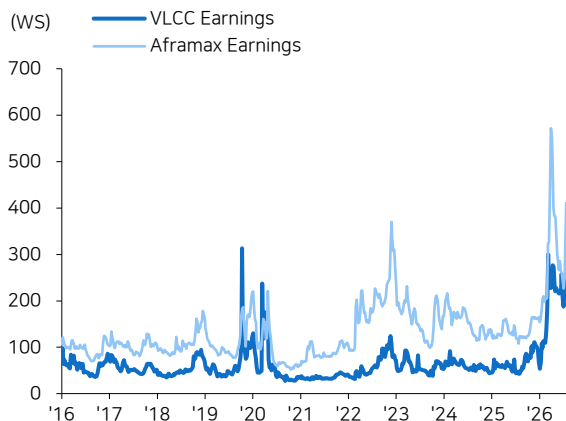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409.6 (+54.4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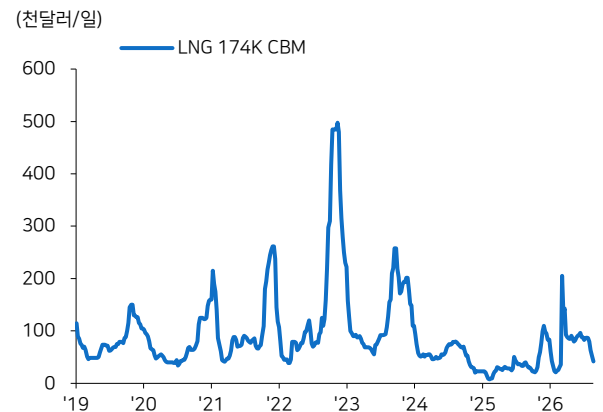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03.9WS (+124.6p WoW)



LNG Spot 운임

42.0천달러 (-11.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美 이란 휴전 합의...호르무즈 자유통항 포함" 러 리아노보스티 (뉴시스)

<https://zrr.kr/l9gtBL>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으며, 합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재개가 포함됐다고 보도됨. 보도에 따르면 휴전은 수일 내 공식 발표되고 이후 후속 협상과 기술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 정부는 아직 공식 확인을 내놓지 않은 상태로 알려짐. 핵심 쟁점인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제5조를 두고 이란은 호르무즈 관리 권한을, 미국은 항행의 자유 보장 의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남아 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 '저탄소 표준 해양플랜트' 개발...글로벌 수주 경쟁력 강화 (세계일보)

<https://zrr.kr/YbBVwi>

한화오션이 저탄소 표준 FPSO 설계 체계에 대해 DNV와 ABS로부터 개념승인(AIP)을 획득하며 친환경 해양플랜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보도됨. 기존 프로젝트별 개별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저탄소 설계 기술과 지속가능성 실행체계를 표준화한 저탄소 FPSO 플랫폼을 구축해 발주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이번 인증을 서아프리카·남미 등 글로벌 FPSO 프로젝트의 입찰과 기본설계에 활용해 저탄소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한화필리조선소, 美 국가안보 다목적선 4 호선 인도 (더구루)

<https://zrr.kr/IWOnsU>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교통부 해사청(MARAD)에 네 번째 다목적 훈련함 '론스타 스테이트'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미국 해양인력 양성과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특수목적 선박 건조 역량을 입증했다고 알려짐. 론스타 스테이트는 텍사스 A&M 해양사관학교의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되며, 한화필리조선소는 MARAD·TOTE Services와 협력해 총 5척의 NSMV 건조 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전해짐. 한화는 필리조선소를 거점으로 NSMV에 이어 미사일 시험용 해상 계측선(MRIV) 건조까지 확보하며, 미국 조선업 재건(MASGA) 정책 아래 비전투 안보 선박 건조 기지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됨.

Core Power strikes deal to develop nuclear cargo ship fleet for US amid new dawn for American shipping (TradeWinds)

<https://zrr.kr/vSbsh2>

영국 원자력 해운 스타트업 Core Power가 미국 해사청(MARAD)과 미국 국적 원자력 추진 화물선 개발을 위한 첫 민관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으며, 2028년 이후 상업화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알려짐. 이번 협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산업 재건 정책과 연계해 한국·일본의 선체 건조 역량과 미국의 원자력 통합 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원자력 추진선의 규제·산업·상업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전해짐. Core Power는 2030년대 후반까지 15~20척의 원자력 상선을 건조하고, 2060년에는 글로벌 원자력 추진 선대가 약 3,000척 규모로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보도됨.

한화에어로, 美 LNG 법인 설립...2029년 여수발전소 공급 (매일일보)

<https://zrr.kr/dKLp8f>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에 LNG 사업 법인 한화호라이즌 USA를 설립하고, LNG 조달·트레이딩·물류를 총괄하는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다고 알려짐. 한화호라이즌 USA는 2029년 상업운전 예정인 한화에너지 여수 LNG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한 뒤 국내외 발전사와 아시아 시장으로 LNG 트레이딩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Venture Global과 LNG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남부발전과 공급망 협력에 나서는 등 안정적인 LNG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영업이익의 최소 30% 공유" HD 현대중 노조, 파업권 확보 (헤럴드경제)

<https://zrr.kr/zcrBC3>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25~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보도됨. 노조는 기본급 14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비용 부담과 투자 재원을 이유로 맞서며 16차 본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해짐.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HD현대삼호,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으로 성과급 협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